

# 감정 연구 방법론 재고와 감정사 이론 재해석\*

정미령\*\*

**초록** 본 연구는 감정 및 감정사 연구 흐름을 짚으며, 진화론적·생물학적 보편주의와 인지주의의 관점, 그리고 사회 구성적 결정론적 세 가지 주요 이론적 지형의 교차점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한 윌리엄 M. 레디(William M. Reddy)와 모니크 쉬어(Monique Scheer)가 제기한 감정사 연구 이론에 대해 검토하였다. 감정을 사회적 규범과 구조로 환원하는 결정론적 입장에 반기를 든 윌리엄 M. 레디는 J. L. 오스틴이 논의한 '진술적'(constative), '수행적'(performative) 발화를 넘어 제3유형인 감정적 발화 행위, 이른바 '이모티브'(emotives) 개념을 창안하며 감정적 능동성을 입증하였다. 레디는 감정이 곧 말이자 행위이며, 단순한 보고가 아닌 해석을 시도하는 행위로 통제 불가능하기에 감정표현이 주체에 의해 능동적으로 '발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모니크 쉬어는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미해결된 문제 중 물질성의 근거인 실체(신체)와 지성적 활동의 근거인 정신이 어떻게 교섭하느냐의 근본적인 문제 '심신이원론'(Mind-Body Dualism)에서 출발하여 감정을 생물학적 보편주의[신(身)]와 인지주의[심(心)]이원론을 넘어선 몸으로 체화된 실체의 산물임을 논증적으로 보여주며 '실천으로서 감정'(emotion-as-practice)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에 기대어 감정이 체화된 '몸'에서 '사회'로, 다시 '몸'으로 환류되는 실천적인 장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두 학자가 제시한 '감정적 발화'와 '실천으로서의 감정'은 기존의 일방향적 분석을 넘어 인간이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감정의 주체적인 측면을 새롭게 조명할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감정사, 생물학적 보편주의, 인지주의, 사회 구성적 결정론, 감정적 발화, 실천으로서의 감정

\* 본고의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유익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비교문학협동과정 박사과정

## 1. 들어가며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로 들어서서 인문학·사회학 학계에서는 포스트구조주의(poststructuralism),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문적 전환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초연한 관찰자로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체계 즉 정적이고 중립적인 이론 체계에 반해 역동적으로 변화해가는 세계, 상대주의적 인식론, 다양성, 감정적 경험을 중요시하는 인식론적 기반을 요청하게 되었다. 역사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은 진보와 해방의 거대 서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목적론적, 결정론적, 선형적 역사 인식론을 거부하며 단절, 불연속, 우연성과 기회를 강조하게 되었다.<sup>1</sup> 이 새로운 연구 흐름은 기존의 서사적 구조를 전면적으로 전복하기보다는 전통적 역사 서술에서 간과되었던 ‘감정’의 충위를 복원하고, 지금까지 익숙하게 여겨온 역사적 사실들에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역사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출발선에서 한발 늦은 듯했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서구 역사학계에서는 본격적인 ‘감정사’(History of Emotions)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감정사 연구가 부상하기 이전에도 감정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지속되어 왔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세기 말부터 독일 사상가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를 비롯하여 역사학자 칼 람프레히트(Karl Lamprecht, 1856~1915), 게오르크 슈타인하우젠(Georg Steinhausen, 1866~1933), 쿠르트 브라이지히(Kurt Breysig, 1876~1940),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 1858~1918) 등 학자들은 인간 내면의 난해한 주제를 향해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sup>2</sup> 이러한 문제의식은 20세기 초 학계에서

1 Philip Smith, and Alexander Riley (2009),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 Malden, MA: Oxford: Blackwell, pp. 113-115.

2 Jan Plamper (2012), *Geschichte und Gefühl: Grundlagen der Emotionsgeschichte*, München: Siedler Verlag, pp. 41-44; Jan Plamper (2015), *The history of emotions: an introduction*,

본격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요한 하위징아(Johan Huizinga, 1872~1945)<sup>3</sup>를 비롯하여 1930년대의 루시앵 페브르(Lucien Febvre, 1878~1956)<sup>4</sup>와 노르베르트

Tr. by Keith Trib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4-48. 근대 역사학의 서술 방식은 오랫동안 이성주의에 기반한 객관적인 서술을 지향해 왔고 역사학의 인식론적 토대로 기능해 왔다. 자연과학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사상가 빌헬름 딜타이는 『정신과학 입문』(*Einleitung in die Geisteswissenschaften*, 1883)에서 인문학을 통해서만 인간의 내면과 문화, 가치, 의미를 총체적으로 탐구하며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동 시기 독일 역사학자인 칼 람프레히트 또한 현대 심리학의 성과를 역사 연구에 도입하여 인간 행동의 내적 동기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독일 감성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게오르크 슈타인하우젠과 각 시기마다 ‘내면적 힘’(Seelenkräfte)이 어떻게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쿠르트 브라이지히 역시 국가를 집단 심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1904~1905/1920)에서 영국의 칼뱅파인 청교도주의(Puritanism)의 금욕, 근면, 직업 소명 의식이 근대 자본주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불러왔는지를 분석하며 인간 내면을 깊이 탐구하였고, 게오르크 짐멜은 『사회학: 사회 형태의 구성에 대한 연구』(*Soziologie: Untersuchungen über die Formen der Vergesellschaftung*, 1908)에서 사회적 사건이나 역사적 과정은 감정, 사고, 심리적 동기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요약하면, 이 시기 사상가들은 ‘감정’을 단순히 개인적 내면의 소란이 아닌, 역사와 문화를 작동시키는 핵심 기제로 재조명했으며 감정 없이 역사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마치 표정 없는 초상화를 해석하려는 것과 다름없음을 간파했다.

- 3 요한 호이징가(1988), 최홍숙 역, 『중세의 가을』, 서울: 문학과지성사, p. 25, p. 27. 19세기 문화사의 도래와 함께 감정적 기질을 묘사하는 방법을 탐구한 요한 하위징아는 『중세의 가을』(*The Autumn of the Middle Ages*, 1919)에서 중세 시기 제후들은 “격렬한 충동, 감정의 기복, 허세 없는 열정, 갑작스러운 잔혹함, 그리고 부드러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백성들은 울음과 분노라는 ‘아동기’(childhood) 기질을 드러낸 시기임을 밝혔다. 하위징아는 감정을 단지 내면적 경험이 아니라, 시대적 맥락 속에서 제도화 의례·예술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인 산물로 분석했다.
- 4 프랑수아 아날학과 1세대를 대표하는 루시앵 페브르와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 1886~1944)는 이전까지 지배적이었던 정치경제를 중심으로 한 거대서사를 비판하며 미시사와 일상사의 지평을 넓혔고, “증오의 역사, 공포의 역사, 잔혹함의 역사, 사랑의 역사”(Lucien Febvre and Peter Burke, eds. (1973), *A New Kind of History: From the Writings of Febvre*, New York: Harper & Row, p. 26)에 관한 새로운 감정사 연구 방향을 호소하였다. Jan Plamper (2015), pp. 40-41; Lucien Febvre (1941), “La sensibilité et l’histoire: Comment reconstituer la vie affective d’autrefois?”, *Annales d’histoire sociale* (1939-1941) 3.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rbara H. Rosenwein and Riccardo Cristiani (2018), *What is the history of emotions?*, Cambridge, UK; Malden, MA: Polity, pp. 41-42.

엘리아스(Norbert Elias, 1897~1990)<sup>5</sup>는 감정을 역사의 주변부가 아닌 심층적인 구조로 끌어올리며 하나의 진지한 탐구 대상으로 설정하기 시작했다.<sup>67</sup>

감정사라는 패러다임은 20세기 후반에 걸쳐, 미국 사회사학자인 피터 N. 스텐스(Peter N. Stearns, 1936~)와 캐롤 Z. 스텐스(Carol Zisowitz Stearns, 1943~)가 「감정학: 감정과 감정적 기준의 역사 해명」(Emotionology: Clarifying the history of emotions and emotional standards)이라는 글이 발표되면서 하나의 분기점이 명확해졌다. 이 강령의 서두에서 규명했듯이, ‘감정학’(Emotionology)은 “사회적 기관과 제도가 어떤 종류의 감정을 장려하거나 금지하느냐”<sup>78</sup>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들은 ‘감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 
- 5 찰리스·齊카(Charles Zika)(2017), 张广翔, 周嘉滢 译, 「当代西方关于情感史的研究: 概念与理论」, 『社会科学战线』第10期, 国外社会科学, pp. 248-249; Elias, Norbert (c1994), *The civilizing process*, Tr. by Jephcott, Edmund, Oxford: Blackwell. 요한 하위징아, 막스 베버, 지그문트 프로이트 등 학자의 초기 연구에 의존한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문명화 과정』(*The Civilizing Process*, 1939)에서 중세 중기부터 20세기까지 유럽 역사를 망라하여 인간 감정표현의 점진적인 억제 과정을 기술하였다. 중세 사회는 분노, 기쁨,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즉각적이고 노골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점차 궁정사회(court society)와 절대왕정이 형성되면서 사회적 규범이 정교해지고 개인은 자신의 충동과 감정을 자기 안에서 억제하고 통제해야만 했다. 이러한 감정 억제는 사회적 매너, 에티켓(etiquette)의 발달과 밀접히 관련되는데, 이를테면, 사교 예의, 식사 예절, 폭력의 규제에서 감정의 자율적인 조절을 요구하게 되었다. 문명화 과정에서 감정표현은 공격 통제에서 사적 통제로 다시 내면의 자기통제로 이동하였다. 노르베르트 엘리아스(1996), 박미애 역, 『문명화 과정 1』, 서울: 한길사, p. 36.
- 6 박경석(2023), 「감정사 패러다임과 중국 근현대사 연구」, 『동방학지』 20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 85-87.
- 7 이외에도 1970년대 말에 들어서서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미셸 푸코의 영향을 받은 근대 사학자인 알랭 코르뱅(Alain Corbin, 1936~)은 루시앙 페브르의 감성 연구를 재평가하면서 오감을 주제로 한 『냄새의 역사』와 『소리의 풍경』 등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森田直子(2016), 「感情史を考へる」, 『史学雑誌』 125卷 3号, 史学会, p. 44; Alain Corbin (1986), *The foul and the fragrant: odor and the French social imagin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Alain Corbin (c1998), *Village bells: sound and meaning in the 19th-century French countryside*, Tr. by Thom, Marti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느낌이나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본능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하고 변화되는 복합적인 현상임을 밝혔다.<sup>9</sup> 중세 역사학자 바바라 로젠바인(Barbara Rosenwein)은 관심사나 목표를 공유하는 어떤 사회집단을 ‘감정공동체’(emotional communities)<sup>10</sup>라고 정의하며 감정평가, 감정적 연결, 감정표현에 관심을 두었다.<sup>11</sup> 로젠바인은 감정사 연구에서 권력의 일방적인 통제에 초점을 둔 스텐스의 ‘감정학’(emotionology)이나, 감정 규범에 기대 연구 접근법과 거리를 두면서 사람들이 여러 감정을 연달아 표현하는 점에 천착하였다.<sup>12</sup> 아울러 분노, 슬픔, 수치심, 친절함과 같은 감정의 연쇄적 반응에 더불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체험했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구성주의에 가까운 방법론을 활용하여 그들이 쓴 ‘감정어’와 그 감정어의 순서를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00년대로 들어서서 뒤늦게 감정사 연구에 합류한 우테 프레베르트(Ute Frevert, 1954~)는 감정을 신체-영혼적 상태로 인정하면서도 그 지각과 표현이 사회문화적 틀에 의존한다는 진단을 내리며 ‘망실된 감정’—19세기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명예’ 감정—이른바, 오늘날 더 이상 경험되지 않는 과거의 감정을 재조명함으로써 감정의 역사성을 탐구하는 시도를 보였다.<sup>13</sup>

- 
- 8 Peter N. Stearns, and Carol Z. Stearns (1985), “Emotionology: Clarifying the history of emotions and emotional standard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0.4, Oxford University Press, p. 813.
- 9 Peter N. Stearns, and Carol Z. Stearns (1985), pp. 828-829.
- 10 Barbara H. Rosenwein (2002), “Worrying about emotions in histo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7.3, Oxford University Press, p. 842; Barbara H. Rosenwein and Riccardo Cristiani (2018), p. 52.
- 11 Monique Scheer (2012), “Are emotions a kind of practice (and is that what makes them have a history)? A Bourdieuan approach to understanding emotion”, *History and theory* 51.2, Wiley-Blackwell, p. 216.
- 12 Barbara H. Rosenwein and Riccardo Cristiani (2018), p. 53.
- 13 김학이(2014), 「감정사 연구의 지평: 우테 프레베르트를 안내자로 하여」, 『독일 연구 역사·사회·문화』 28, 한국독일사학회, pp. 243-244; Ute Frevert (1991), *Ehrenmänner: Das Duell in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München: C. H. Beck.

지금까지 논의한 감정사 연구에서 로젠바인의 감정적 체험을 제외하면 모두 특정 지역, 특정 시기의 감정 규범과 감정 체제, 그리고 시대적 감정의 변화를 주목한 연구에 해당하며, 언제까지나 상위 주체인 국가 기관과 같은 규범자 측의 일방향적인 감정 규정을 탐구하는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sup>14</sup> 이런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감정의 능동성을 포착하여 감정 분석의 새로운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들은 기존의 생물학적 보편주의와 인지주의적 관점, 사회 구성적 결정론적<sup>15</sup> 세 가지 감정 연구 접근법을 소환한다. 알다시피, 보편주의 관점은 감정을 생리학적이고 진화론적인 범주로 해석하며 인간에게 공통된 정서 반응을 전제한다. 이와 달리 인지주의 관점은 감정을 특정한 자극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결과로 이해한다. 사회 구성적 결정론적 관점은 감정을 사회문화적 규범과 담론의 산물로 환원해버린다. 다양한 감정 연구 패러다임의 긴장과 한계를 인식하며 새로운 이론적 시도를 모색한 윌리엄 M. 레디(William M. Reddy, 1947~)와 모니크 쉬어(Monique Scheer, 1967~)는 감정의 능동적인 측면

14 내적 동기, 내면적 힘을 역사와 문화를 작동시키는 핵심 기제로 논의한 칼 램프레히트, 게오르크 슈타인하우젠, 막스 베버, 게오르크 짐멜의 논의는 모두 인간 내면의 자율성을 분석한 것이기는 하지만, 감정의 능동성 문제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논의한 것은 아니다.

15 William M. Reddy (1997), "Against Constructionism: The Historical Ethnography of Emotions", *Current Anthropology* 38(3),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레디는 이 글에서 'strong constructionist', 'simplistic constructionism', 'Emotional Constructionism' 등 개념을 언급하고, 더불어 Lyndal Roper (1994)의 글을 인용하면서 'social constructionism', 'linguistic constructionism' 등 용어를 언급한다. 로젠바인 역시 "Created emotions: the social constructionist view(창조된 감정: 사회구성주의적 관점)"[Rosenwein, Barbara H. and Riccardo Cristiani (2018), p. 28]이라는 장 제목으로 앞서우며 감정의 사회 구성적 측면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여기서 논의한 '구성주의'는 고전적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개념인 것으로 판단된다. 감정사 연구에서 종종 언급된 '구성주의'라는 용어는 '사회 구성적 결정론적' 성격이 강한 의미에 국한하여 논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정사 연구에서 종종 제기되는 '사회구성주의' 용어를 '사회 구성적 결정론'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것을 미리 밝혀둔다.

을 논증하였다. 그들은 어떠한 인식론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진화론적·생물학적 보편주의와 인지주의의 이원론적 함정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감정을 단지 사회 구성적 결정론적·환원론적으로 해석하려는 접근법과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한 것일까? 두 학자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다음 장에서는 진화론적·생물학적 보편주의, 인지주의, 사회 구성적 결정론적 세 갈래의 다층적인 연구 접근법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런 다음 레디의 ‘감정적 발화’(이모티브, emotives)와 쉬어의 ‘실천으로서의 감정’(emotion-as-practice)의 이론적 기여를 검토함으로써 감정의 능동성이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감정, 진화의 선물인가 문화의 산물인가?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서구 학계에서 ‘감정’ 개념을 연구하는 학문은 주로 철학, 신학, 수사학, 의학, 문학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심리학, 20세기 후반에는 사회학과 인류학이 합류하면서 다양한 사회와 문명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20세기 말에 들어서서 감정 연구는 점차 역사학, 생명과학 분야로 옮겨가고 있었다. 다학문적 참여는 감정을 매우 풍부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지만, 어떠한 방법론을 토대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인식론적 사유를 유발하기도 한다.

우선, 감정을 생물학적 진화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논의를 살펴보려 한다.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은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1872)에서 인종, 문화, 지역과 상관 없이 감정표현이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반인종주의적 함의를 담고 있는 과학적 보편주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는 감정 반응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sup>16</sup> 첫 번째는 ‘유용한 연관 습관의 원리’에 관한 것이다. 두 번

째는 ‘반대의 원리’이다. 세 번째는 ‘신경계의 직접적 작용 원리’에 관한 것이다. 찰스 다윈은 개의 일상의 움직임의 사례로 제시하며 설명을 덧붙이는데, 예컨대 돌로 포장된 도로에서 개는 배설한 후, 뒷발로 흙을 긁으며 덮는 시늉을 하는 것은 과거에 이러한 행동이 감정 상태를 완화했거나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기에 같은 감정이 반복될 때 몸이 습관화되어 자동적으로 그 움직임을 재현한다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개가 꼬리를 흔드는 친근한 표현은 공격할 준비가 되었을 때 꼬리를 고정하는 것과 반대되는 움직임이 종종 나타나며, 이는 감정 상태에 반대되는 감정이 유발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도 본능적으로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특히 외부에서 오는 강한 자극이 감각중추를 흥분시키면 의지나 습관과 무관하게 신경 에너지가 특정 경로를 따라 어떠한 표정을 촉발하기도 한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Paul Ekman, 1934~)을 비롯한 학자들에 따르면, 찰스 다윈은 감정표현을 학습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긴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임을 주장하였다.<sup>17</sup> 20세기 후반 이후, 폴 에크만은 기본 감정 이론의 주창자<sup>18</sup>가 되어 행복(happiness), 분노(anger), 혐오감(disgust),

16 Charles Darwin (1872),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London: John Murray, pp. 24-25; Jan Plamper (2015), pp. 168-169.

17 Jan Plamper (2015), p. 169; Charles Darwin (1998),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3rd ed., P. Ekman, Intro., afterword, & commentarie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xxi - xxxvi, here xxii.

18 Randolph R. Cornelius (1996), *The Science of Emotion: Research and Tradition in the Psychology of Emo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pp. 173-174. R. R. 코너리아스(1999), 齊藤勇 監訳, 『感情の科学: 心理学は感情をどこまで理解できたか』, 東京: 誠信書房, pp. 217-218. 에크만 외에도 “이자드(Izard), 톰킨스(Tomkins), 플러치크(Plutchik)은 모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기본감정 또는 이를 발달시킬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오틀리(Oatley)와 존슨-레이어드(Johnson-Laird)는 인지적 전통 안에서 작업하면서도 진화론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 인간이 소수의 기본 감정(감정 모드(emotion modes))을 소유한다”고 주장했다. Keith Oatley, and Philip N. Johnson-Laird (1987), “Towards a Cognitive Theory of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1(1), Taylor & Francis.

공포(fear), 슬픔(sadness), 놀람(surprise)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한<sup>19</sup> 후, 경멸(contempt), 수치심(shame), 죄책감(guilt), 당혹감(embarrassment), 경외감(awe)과 같은 감정을 덧붙여 기본감정이라고 해석하였다.<sup>20</sup> 에크만은 『인간과 동물의 감정표현』(1998)에서 반인종주의적인 다윈을 옹호하는 논평을 남기는데, 인간이 설령 다른 종족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를 망라하여 감정과 느낌은 비교적 유사한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화와 사회 환경의 차이를 넘어 일관하게 통용될 수 있는 생물학적 보편주의를 주장하였다.<sup>21</sup>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문화의 경계를 넘는 순간부터 다소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본 앨런 J. 프리들룬드(Alan J. Fridlund)는 “두려움과 분노는 각성 상태와 연관되며 눈물은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sup>22</sup>을 피력하였다. 앤드루 오르티니(Andrew Ortony)와 테렌스 J. 터너(Terence J. Turner) 역시 감정은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주관적 요소가 뒤섞인 복합체이며 이러한 퍼즐이 맞춰 질때, ‘기본감정’이라는 깃발은 내려놓아야 한다<sup>23</sup>고 역설하였다.

찰스 다윈보다 한 세대 뒤인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는 “우리가 울기 때문에 미안함을 느끼고, 때리기 때문에

- 
- 19 William M. Reddy (2001), *The Navigation of Feeling: A Framework for the History of Emoti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2; Paul Ekman (1972), *Emotion in the Human Face: Guide-Lines for Research and an Integration of Findings*, Oxford: Pergamon Press; Paul Ekman (1980), *The Face of Man: Expressions of Universal Emotions in a New Guinea Village*, New York: Garland STPM Press.
- 20 Paul Ekman (1992),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6(3-4), London: Routledge, p. 170; Jan Plamper (2015), pp. 149-150.
- 21 Jan Plamper (2015), p. 167.
- 22 William M. Reddy (1997), p. 335; Alan J. Fridlund (1992), “The Behavioral Ecology and Sociality of Face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3, *Emotion* (ed. by Margaret S. Clark), Newbury Park, CA: Sage., p. 103.
- 23 Andrew Ortony, and Terence J. Turner (1990(97)), “What’s basic about basic emotions?”, *Psychological Review*,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p. 329.

화를 내며, 떨기 때문에 두려워한다”<sup>24</sup>라고 언급하며 신체적 표현이 먼저 개입된다는 ‘신체학파’ 테제를 정립하였다. 그에 의하면, 외부 자극을 통해 감각적 인지 과정을 거쳐 근육·내장·피부 등 신체 일부의 즉각적인 반사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이 다시 대뇌 피질에서 인지되는데, 그것이 곧 감정을 형성한다고 해석하였다.<sup>25</sup> 그는 감정을 독립적인 인지 과정으로 보지 않고, 자극에 의한 신체 반응을 인지한 결과임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제임스는 “순전히 육체와 분리된 인간의 감정은 아무런 의미”<sup>26</sup>가 없다고 피력한다. 생리학자 칼 게오르그 랑게(Carl Georg Lange) 역시 유사한 견해를 가졌으나, 감각 말초신경 자극이 뇌로 전달되어 감정이 인지된 것으로 진단한 제임스의 입장과 달리 랑게는 뇌에는 ‘혈관운동중추’(vasomotor center)라는 신경 세포들의 집합체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 중추는 단순히 신호를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라, 말초에서 오는 신호를 받고, 다시 신체로 신호를 보낸다고 강조하였다.<sup>27</sup> 즉, 말초 자극이 중추적 처리를 통과하여 다시 말초 반응으로 되돌아오는 순환적인 구조를 띤다. 따라서 랑게의 감정 발생 경로는 제임스가 주장한 신체 말초 이론과 미세하게 차이점을 갖는다. 그 외, 신경학자 조셉 루두(Joseph LeDoux)는 편도체(amygdala)가 감정 처리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고 밝혔고,<sup>28</sup> 신체, 뇌, 마음이 어떻게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통합되는지를 보여준 통합적 유기체론자 안토니오 다마시오(Antonio Damasio, 1944~)는 ‘신체 표지 가설’(Somatic Marker Hypothesis; SMH)<sup>29</sup>을 내세워 해당

24 William James (c1948), “What is emotion? 1884”, *Readings in the history of psychology* (ed. W. Denni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p. 292. “we feel sorry because we cry, angry because we strike, afraid because we tremble.”

25 William James (c1948), p. 302.

26 William James (c1948), p. 295.

27 Jan Plamper (2015), p. 177; Claudia Wassmann (2009), “Physiological Optics, Cognition and Emotion: A Novel Look at the Early Work of Wilhelm Wundt”,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64/2, Oxford University Press, p. 247.

28 Jan Plamper (2015), pp. 2-4.

29 Jan Plamper (2015), p. 214. 신체 표지는 뇌의 특정 영역인 복내측 전전두피 질

현상을 설명하였다. 우선, 과거 경험에서 특정 상황과 결합된 신체의 생리적 변화에서 감정적 반응 패턴이 뇌에 저장되는데,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신체 표지는 활성화되어 직관적이고 빠르게 판단을 내린다. 즉, 이 ‘느낌’이 신체의 반응이며, 합리적 판단을 돕는다. 지각이 신체의 실천적 경험 안에 통합되어 있듯이, 감정 역시 신체의 생리적 반응과 표지 안에 근본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앞서 논의한 것과 달리, 인지주의적 관점을 옹호하는 연구자들은 감정을 평가나 판단과 같은 기제가 작동한 인지적·정신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 이후 심리학자들은 감정의 본질을 단순한 생리적 반응으로 환원하기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고대 철학자들의 감정 개념을 참조하여 감정을 인간의 인지적 능력 이른바 ‘판단’ 기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현상으로 재정의하였다.<sup>30</sup> 하지만 평가는 반드시 의식적으로 인지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판단이나 언어 이전(pre-linguistic) 단계에서도 일어난다.<sup>31</sup> 다윈주의 이전 『인간과 동물의 정신에 대한 강의』(Vorlesungen über die Menschen- und Thierseele, 1863)을 출판한 빌헬름 분트(Wilhelm Wundt, 1832~1920)는 감정을 일으키는 데 있어 인지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며 신생아조차도 ‘달콤함’과 ‘신맛’, ‘즐거움’과 ‘불쾌함’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32</sup> 감정에 대한 인지적 평가 이론을 최초로 체계화한 심리학자 마

---

(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에 남겨진 몸의 말단부(피부, 손, 머리카락)에서 비롯된 육체적 감정표현의 인상 혹은 흔적을 가리킨다. Antonio R. Damasio (1994),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New York: Putnam.

30 Barbara H. Rosenwein, and Riccardo Cristiani (2018), p. 25; Magda B. Arnold (1960), *Emotion and Personality, Vol. 1: Psychological Aspec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 171; Agnes Moors, Phoebe C. Ellsworth, Klaus R. Scherer, and Nico H. Frijda (2013), "Appraisal Theories of Emotion: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evelopment", *Emotion Review* 5(2), SAGE Publications, pp. 119-124.

31 Barbara H. Rosenwein, and Riccardo Cristiani (2018), p. 26.

32 Jan Plamper (2015), p. 178.

그다 아놀드(Magda Arnold, 1903~2002)는 감정은 자극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신체 또는 뇌, 혹은 양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적 반응이 유발된다고 설명해 온 생물학적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극과 반응 사이의 ‘인지적 평가’(cognitive appraisal)라는 과정을 거쳐 행동, 생리적 반응, 주관적 느낌이 이루어진다고 역설하였다.<sup>33</sup>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리처드 라자라스(Richard S. Lazarus, 1922~2002) 역시 감정 발생에 있어 무의식적인 인지적 판단인 ‘직관’(intuition)이 필요조건이자 동시에 충분조건임을 강조하였다.<sup>34</sup>

감정 연구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후 문화인류학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었다. 오늘날 감정인류학의 논의는 감정을 집합적 의식의 표현으로 이해한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성립되었다. 에밀 뒤르켐은 그의 인류학 연구에서 무엇이 사회를 하나로 묶는지, 집단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 나아가 의식과 그들의 기능을 포함한 집단적 표상, 그리고 ‘감정’과 ‘감정표현’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보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애도’(mourning)는 개인적인 감정의 자발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회적인 의무이다.<sup>35</sup> 친척들이 울고 슬퍼하는 행동은 진정한 슬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집단이 부과한 규범에 따른 것이다. 즉, 애도자는 슬픔을 경험하는 것과 별개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슬퍼하며 종종 외부의 대화 주제에 따라 즉각적으로 감정을 전환할 수 있다. 이렇듯 뒤르켐은 ‘애도’라는 행위 자체가 개인적인 정서와는 무관하고 신화적 또는 사회구성적 환원론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33 森田直子(2016), p. 41; Barbara H. Rosenwein, and Riccardo Cristiani (2018), p. 25.

34 Richard S. Lazarus (1982), “Thoughts on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7,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pp. 774-777.

35 Émile Durkheim (c1995),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Tr. by Fields, Karen E., New York: Free Press, pp. 400-401. “애도는 잔인한 상실로 명든 사적인 감성의 자연스러운 충동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이 부과하는 의무이다. 그들은 단순히 슬퍼서가 아니라 슬퍼해야 하기에 슬퍼한다.” Jan Plamper (2015), p. 83.

구성주의적 접근에서 감정인류학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미셸 로살도(Michelle Rosaldo)는 필리핀에 위치한 일롱고트 부족의 머리사냥 과정에서 포착한 비통함과 분노 감정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며 문화 연구에 착수한다. 그는 필리핀 루손섬에 사는 일롱고트(Ilongot) 부족의 '리제트'(liget) 개념을 중심으로 그들의 감정, 문화, 성인식, 폭력의 정당화 방식을 전개하였다.<sup>36</sup> 분노, 에너지, 질투 등 강렬한 감정 리제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자 행동을 이끄는 힘이다. 리제트는 경작과 사냥, 부족 방어, 복수 등 중요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공동체 삶을 유지하도록 만든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한 극한 고통이 리제트로 전환되면서 '머리사냥'(headhunting)으로 이어진다. 머리사냥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문화적·정서적 치유의 수단이다. 혼란스러운 감정(리제트)에 빠진 청소년은 부족 원로의 지도하에 머리사냥이라는 의례를 통해 성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 연구에서 미셸 로살도는 "일롱고트족의 내밀한 감정 경험이 부족의 감정어와 그 감정에서 비롯된 실천에 의하여 형성된 것임"<sup>37</sup>을 발견한다. 비록 감정이 생물학적 요소와 결합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 코드에 대한 해석이라고 로살도는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학습을 통해 형성되므로 결국 문화적 산물로 환원된다. 특히 미셸 로살도는 인간의 자아가 문화에 따라 거의 무한하게 조형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다는 결론을 내린다.<sup>38</sup> 이는 즉, "개

36 Michelle Z. Rosaldo (1980), *Knowledge and Passion: Ilongot Notions of Self and Social Lif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7. 상세한 내용은 5장(pp. 137-176)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37 William M. Reddy (2001), p. 56.

38 William M. Reddy (2001), pp. 36-37. 흥미로운 점은 로살도가 일롱고트족을 다시 방문했을 때, 과거의 '머리사냥'은 이미 필리핀 정부의 억압으로 사라진 상태였다. "부족민들의 요청으로 과거 축제의 녹음 테이프를 틀었지만, 곧 녹음을 중단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들은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하며, 한때 열렬히 원했던 것이 이제는 견딜 수 없게 된 사실에 스스로 놀라워했다. 많은 일롱고트족은 기독교로 개종한 상태였고, 기독교가 '리제트'를 없애고 그 대신 보다 평온한 감정을 줄 것이라 믿고 있었다. 리제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참여와 상징적 실천을 통해 형성된

인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조직된 행동양식과 언어의 산물”<sup>39</sup>임을 입증한다.

1960년대 초반, 미국 인류학계에서는 해석학적 접근이 새로운 이론적 흐름으로 부상하였다. 클리퍼드 기어츠(Clifford Geertz, 1926~2006)와 힐드레드 기어츠(Hildred Geertz)는 사유뿐만 아니라, ‘감정’도 인간의 문화적 인공물이라는 점을 제시하며 인간이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중층기술’(thick description)을 제시하며 의식, 신화, 예술 영역에서 공적 의미까지 포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70년대 힐드레드 기어츠는 ‘자바인’에 관한 연구에서 인간의 감정은 어린아이의 훈육 과정에서 다양한 영향과 환경에 종속된 문화적 변수에 의해 형성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sup>40</sup> 유의할 점은 클리퍼드 기어츠는 자바인의 장례식을 두고 감정이 상대주의 경향을 나타낸다고 밝힌다. 이를테면, “휘감는 분위기는 어떤 히스테릭한 상실감, 억제할 수 없는 흐느낌, 혹은 죽은 자가 떠나가는 것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형식화된 울음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거의 맥없는 상태로 사자를 떠나보내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의례적으로 단절시키는 아주 간략한 행사”였다.<sup>41</sup> 이런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상실을 경험할 때 흔히 강렬한 ‘슬픔’ 혹은 ‘분노’가 동반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바인의 장례식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비통함을 수반하는 ‘분노’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sup>42</sup>

---

문화적 산물이었다.”

39 Michelle Z. Rosaldo (1984), “Toward an Anthropology of Self and Feeling”,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ed. by Richard A. Shweder and Richard A. LeV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47; William M. Reddy (2001), p. 35.

40 Jan Plamper (2015), pp. 88-89.

41 Clifford Geertz (2017),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p. 153.

42 Renato Rosaldo (c1993), *Culture & truth: The remaking of social analysis*, Boston: Beacon

캐서린 루츠(Catherine Lutz)는 태평양 환초 이팔룩(Ifaluk) 부족의 감정에 대한 중요한 민족지학을 발표한다. 이 연구에서 루츠는 감정이 지역적이고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발견한 로살도처럼 구성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강화하였다.<sup>43</sup>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루츠와 제프리 M. 화이트(Geoffrey M. White)는 감정이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sup>44</sup> 그들에 의하면, “보편적 감정은 정서의 밑바닥층에 위치되어 있다. 프로이트의 1차 및 2차 사고 과정과 마찬가지로, 감정의 단일하고 보편적인 측면은 문화적 ‘틀’, ‘필터’, ‘렌즈’, ‘표현 규칙’, ‘방어 메커니즘’에 의해 다양하게 ‘형상화’, ‘여과화’, ‘채널화’, ‘왜곡화’되거나 혹은 ‘가면화’되어 있다.”<sup>45</sup> 기타 연구자의 논의에서도 종종 보편적인 감정과 정서가 기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로드니 니드엄(Rodney Needham)은 ‘감정’이라는 것이 다른 언어에서 분별할 만큼 본연적으로 다르거나 다양하지 않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sup>46</sup>

이 외에도 1970년대 중반 이후 사회학에서 감정 연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감정사회학’이 등장했다. 이는 기존의 감정심리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감정을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하려는 흐름이 형성되었다. 조너선 H. 터너(Jonathan H. Turner)와 안 E. 스테츠(Jan E. Stets)는 『감정사회학』(*The sociology of emotions*)에서 연극적 및 문화적 이론(dramaturgical and cultural theories), 의례 이론(ritual theories), 상징적 상호작용이론(symbolic interactionist theories), 정신분석적 사상을 통합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

Press, pp. 9-10, p. 227.

43 William M. Reddy (2001), pp. 40-41.

44 Jan Plamper (2015), p. 89.

45 Catherine Lutz, and Geoffrey M. White (1986), “The anthropology of emotion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Annual Reviews, p. 412.

46 Rodney Needham (1978), *Essential Perplexities: An Inaugural Lecture Delivered before the University of Oxford on 12 May 1977*, Oxford: Clarendon Press, p. 20; Jan Plamper (2015), p. 90.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ies incorporating psychoanalytic ideas), 교환이론(exchange theories), 구조이론(structural theories), 진화이론(evolutionary theories) 등 여러 이론을 체계적으로 조명하였다.<sup>47</sup> 여기서 몇 가지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극적 및 문화적 이론은 어빙 고프먼(Erving Goffman, 1922~1982)의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적 토대에 기반한 것이며 연극적 은유를 확장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어빙 고프먼은 인간의 상황적 행동은 대체로 전략화된 사회적 무대 공연이며 주변 사람들은 이를 지켜보는 관객이라고 정의한다.<sup>48</sup> 다시 말해 고프먼은 감정을 독립적인 내면의 정서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특정한 감정표현이 허용되거나 통제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의례 이론에서 에밀 뒤르켐과 어빙 고프먼의 영향을 받은 랜들 콜린스(Randall Collins, 1941~)는 감정을 사회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간주하며 대면 상호작용—의례, 대화, 신체 자세—을 통해 ‘감정적 에너지’가 생성되고 집단의 연대감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고 보았다.<sup>49</sup> 그리고 구조이론에서 테오도어 켐퍼(Theodore Kemper)는 권력-지위 감정이론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모든 개인은 일정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권력과 지위의 변화는 개인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sup>50</sup> 따라서 켐퍼는 감정이 단지 개인의 내면에서 자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구조 속에서 권력과 지위의 흐름에 따라 조절되고 유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감정사회학적 논의들은 감정을 사회적 관계와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산물로 이해하려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47 Jonathan H. Turner, and Jan E. Stets (c2005), *The sociology of emotion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3.

48 Erving Goffman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rden City, N.Y.: Doubleday, p. 15.

49 Jonathan H. Turner, and Jan E. Stets (c2005), p. 69; 森田直子(2016), p. 42.

50 Jonathan H. Turner, and Jan E. Stets (c2005), pp. 216-218.

### 3. 세 가지 패러다임의 교차점에서 재해석한 ‘감정적 발화’와 ‘실천으로서 감정’

심리학 분야 감정론자들은 흔히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수의 기본감정을 진화시켰다는 주장과 달리 인지주의 연구자들은 생물학적 반응 이전에 인지적 판단이 선행되거나 이후에 인지적 판단을 거쳐 어떠한 감정이 생성한다고 보았다. 문화 인류학의 연구에 의하면, ‘감정’은 사회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결정론적 관점에 더불어 감정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는 상대론적 경향을 밝히기도 했다.

감정사 연구에서 진화론적·생물학적 보편주의와 사회적 구성적 결정론적 이원론 관점에 이의를 제기한 역사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윌리엄 M. 레디(William M. Reddy, 1947~)는 『감정의 항해』(*The Navigation of Feeling: A Framework For The History Of Emotions*, 2001)<sup>51</sup>에서 개인의 감정체험과 ‘감정체제’(emotional regimes)<sup>52</sup>를 매개하는 ‘이모티브’(emotives) 개념을 분석 도구로 제시하였다.<sup>53</sup> 그는 개인의 내면 감정과 사회에서 정해진 감정 규범이 충돌될 때, 개인은 감정적 억압을 경험하고, 그 충돌이 극에 도달하면 ‘감정

51 윌리엄 M. 레디가 제목에서 ‘Emotion’이 아닌 ‘Feeling’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레디는 ‘이모티브’(emotives) 이론을 내세우며 감정을 변화시키는 능동성을 지닌 감정적 발화에 주목하였다. 감정이론의 중심축을 이루는 ‘이모티브’(emotives, 감정적 발화)는 자아 탐색적이고 자아 변경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항해술처럼 감정의 능동적인 측면을 부각하고자 ‘Feeling’을 사용한 것이지 ‘History Of Emotions’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부제에서 확인되듯이, 레디는 *A Framework For The History Of Emotions*, 즉 ‘감정사 연구를 위한 틀’임을 명시하고 있다.

52 감정체제(emotional regimes)란 한 사회나 집단이 특정 시기 동안 “개인이 규범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일탈적인 감정을 피하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체계”를 의미한다. William M. Reddy (2001), pp. 124-125.

53 윌리엄 M. 레디(2016), 김학이 역, 『감정의 항해: 감정 이론, 감정사, 프랑크혁명』, 서울: 문학과지성사, p. 198.

적 고통’(emotional suffering)이 수반된다<sup>54</sup>고 보았다. 사람들은 ‘감정적 고통’이 쌓이면, 살롱(salon), 극장(theater), 클럽(club), 프리메이슨(Freemason), 서신(correspondence), 소설(novel), 예술(art) 등과 같은 ‘감정적 피난처’(emotional refuge)를 찾아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기존의 감정 규범을 전복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난다.<sup>55</sup> 어떤 사회이든 간에 엄격한 감정 규범이 부과하게 되면, 이 규정해 놓은 심리적 통제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다양한 실천, 관례, 통로가 사회 내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윌리엄 M. 레디는 민족지학자들이 조사해 온 서로 다른 언어의 감정 용어들 사이에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 그리고 행동 지향과 얼굴에 나타난 표정의 생리학적 반응의 강력한 증거가 유전적인 기반 위에서 성립되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예크만이 제시한 여섯 가지 기본감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sup>56</sup> 나아가, 감정을 단순한 사회적 산물로 환원하는 사회 구성적 결정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사회 구성적 결정론 관점이 언어 이전 또는 언어 바깥에 존재하는 감정·욕망·경험의 차원, 즉 주체의 내면을 위한 자리를 부정하고 감정을 너무 외재적이고 수동적인 규범의 종속물로 환원했다고 지적한다.<sup>57</sup> 예컨대, “감정에

54 森田直子(2016), p. 45; 박경석(2023), p. 89.

55 William M. Reddy (2001), p. 154. 윌리엄 M. 레디는 ‘감정적 피난처’로 시작된 역사적인 실천과 제도는 많다고 밝힌다. 4세기와 5세기 초 로마에 나타난 기독교도들의 금욕주의, 11세기 서유럽에서 부활한 금욕주의, 13세기 베긴회(Beginen) 공동체, 궁정식 사랑(courtly love), 종교개혁기 지하 집회(conventicles)나 신성한 도시들(취리히, 스트라스부르, 제네바), 이 모든 것이 당시 사람들의 ‘감정 피난처’였다.

56 William M. Reddy (1997), p. 335.

57 William M. Reddy (1997), p. 330; Lyndal Roper (1994), *Oedipus and the devil: Witchcraft, sexuality, and religion in early modern Europe*, London: Routledge. 린들 로퍼(Lyndal Roper)는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와 언어구성주의(linguistic constructionism)는 모두 언어(language)와 주체성(subjectivity) 사이의 영역을 단락시켜, 마치 이 사이에 연결될 공간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린들 로퍼는 언어와 주체성 사이의 ‘정신적’(psychic) 공간을 분석하기 위해 정신분석학(psychoanalysis)을 도입하지만, 문제점은 ‘정신적’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고, 더불어 사고

대한 말이나 몸짓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탈구조주의 이론에서 파생된 ‘담론’ 개념이나 피에르 부르디외,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등의 이론적 저술에서 파생된 ‘실천’ 개념<sup>58</sup>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그는 “감정을 행동과 기대의 조합으로 정의하며 내면적 잔유물의 존재를 부정<sup>59</sup>한 베네딕트 그리마(Bénédicte Grima)의 주장과 “감정의 실제 지시 대상보다 그것을 구성하는 담론 자체의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sup>60</sup>고 본 아부 루고드(Abu-Lughod)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레디는 감정이 곧 발화이며, J. L. 오스틴(J. L. Austin, 1911~1960)이 논의한 ‘진술적’(constative) 또는 ‘수행적’(performative) 발화를 넘어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동시에 감정을 조정하고 형성하는 발화 이른바, 제3유형의 감정표현 행위, ‘감정적 발화’(이모티브, emotives)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모티브’(emotives)는 단순한 진위문도 고전적 의미의 수행문도 아닌, 감정과 연관되는 독특한 의사소통 행위이다.<sup>61</sup> 다시 말해 진위문(기술문)과 수행문을

---

와 감정을 진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Catherine Lutz (1988), *Unnatural emotion: Everyday sentiments on a Micronesian atoll and their challenge to Western the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추가로 레디는 서구 근대 사회과학 전통에 기반한 접근법이 근대 서구의 이론적 틀을 보편적 진리로 간주하여 적용됨으로써 서구 외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비서구 사회와 과거의 역사적 주체들을 오해하거나 그들의 내면적 경험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 58 William M. Reddy (1997), p. 327; Barbara H. Rosenwein, and Riccardo Cristiani (2018), pp. 47-48.
- 59 William M. Reddy (1997), p. 330; Bénédicte Grima (1992), *The performance of emotion among Paxtun wome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p. 7.
- 60 William M. Reddy (1997), p. 330; Lila Abu-Lughod (1990), “Shifting politics in Bedouin love poetry”, in *Language and the politics of emotion* (ed. by Catherine A. Lutz and Lila Abu-Lugh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8.
- 61 추가로 로버트 솔로몬(Robert C. Solomon, 1942~)의 논의를 가져오면, “감정은 J. L. 오스틴이 ‘수행적’(performative)이라고 부르는 언어 이전의 유사어이고, 이는 단순히 상황을 묘사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하는 판단”이다. Robert C. Solomon (1976), *The Passions: The Myth and Nature of Human Emotion*, New York: Doubleday, p.

넘어서 ‘이모티브’라는 감정문에는 관계적 의도, 특히 자아-탐색적이고, 자아-변경적인 파생적 효과를 지닌다.<sup>62</sup> 따라서 ‘이모티브’는 화자가 아닌 다른 누구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내면적 상태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는 행위이다. 알다시피, 인간은 깊은 내면성을 해석하고 표현하려 해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 레디는 이러한 감정표현의 실패야말로 인간의 역동적인 변화가능성의 조건을 마련해주며 ‘가소성’(plasticity)을 갖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을 완벽히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 방식을 배우며 정체성을 구성해 나아가려고 노력한다. 레디의 논의를 첨언하면, “감정은 언어의 구조적 체계(langue)를 배경으로 실제 발화(parole)를 생성”<sup>63</sup>하는 자기 해석적 발화이다.

이러한 해석적 시도는 사회적 삶에서 필수적이며 자신의 정체성, 대인관계, 미래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레디는 대니얼 데닛(Daniel Dennett, 1942~2024)의 ‘다중 초안’(multiple drafts) 모델에 기대어 “의식과 무의식의 구분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 감정에 대한 “어떤 보고도 불완전한 여러 ‘초안’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러한 초안들은 주목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이라는 논의를 가져와 감정적 발화(emotives)의 능동성을 입증하고 있다.<sup>64</sup>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궁극적으로 거시적인 틀인 사회적, 문화적 규범 체계 내에서 개인 내면의 미시적인 세계에서 생성한 감정적 발화로 이해하게 만든다. 개인의 미시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감정표현을 넘어, 공동체 차원의 능동적이고 집합적인 감정적 발화가 가능하냐는 의문에 대해 레디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는 “공동체 관습을 감정적 통제 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즉 감정적 주체들이 감정을 형성하는 능력을 활용하는 방

196; Rosenwein, Barbara H. and Riccardo Cristiani (2018), p. 30.

62 윌리엄 M. 레디(2016), 김학이 역, p. 157, p. 173.

63 William M. Reddy (1997), p. 331.

64 William M. Reddy (1997), p. 332. Daniel C. Dennett (1992), *Consciousness explained*, Boston: Little, Brown, pp. 101-138.

식으로 본다면, 권력, 정치, 해방은 그 의미를 되찾는다<sup>65</sup>는 가설을 세우고 있다. 이 가설은 전적으로 감정적 주체의 능력이 부각됨으로써 단지 관습을 따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감정을 사회적 구성물로 간주하는 사회 구성적 결정론적 관점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든다.

레디는 프랑스 혁명 전야의 카페, 살롱, 프리메이슨, 형제회, 인쇄 매체, 아카데미, 예술계라는 ‘감정적 피난처’(emotional refuge)에서 ‘이모티브’가 기존의 엄격한 명예 규범에서 탈피하여 감정을 재구성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핵심적 기제로 기능했음을 입증하였다.<sup>66</sup> 루이 14세가 통치하는 동안 ‘명예 규약’(honor code)은 베르사유 궁정의 화려한 예절과 행동 기준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강화되었다.<sup>67</sup> 당시 공식적인 행동규범은 매우 엄격했으며 점차 귀족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변질해버렸다.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법과 질서를 경험했으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루이 14세의 관료적 통제가 유발한 ‘감정적 고통’(emotional suffering)을 토대로 구축된 강압적인 질서였다. 엄격한 명예 규범이 강제되는 시기에 ‘감정적 피난처’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고 형태가 등장하였다. 이른바, 귀족들은 엄격한 위계질서를 벗어나기 위해 살롱과 같은 소규모 친밀 모임을 만들어 미적 쾌락과 지적 쾌락을 나누었다. 나중에는 귀족과 평민, 부유한 후원자와 무일푼 작가들이 모여 ‘동료애’라는 평등 원칙을 바탕으로 서로 교류하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감정 체제와 대립되는 ‘감정적 피난처’는 내부에서 공유되는 새로운 감정적 기준을 토대로 훗날 체제를 뒤엎는 혁명적 에너지의 기반을 마련했다.<sup>68</sup>

65 William M. Reddy (1997), p. 335.

66 이모티브는 개인 간 친밀한 유대와 연대를 형성하며 기존의 권력 구조나 명예 규범에 도전하는 변화를 촉진하여 새로운 정서적 경향을 지닌 ‘센티멘털리즘’(sentimentalism) 시대를 열었다.

67 William M. Reddy (2001), pp. 145-146.

68 김성호(2015), 「감정사(感情史)의 개념과 쟁점: 윌리엄 레디의 연구를 중심으로」, 『영미문학연구』 29, 영미문학연구회, p. 37. 유의할 점은 억압적인 체제에서 개인이 느끼는 고

생물학적·진화론적 보편주의와 사회 구성적 결정론적 이원론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한 윌리엄 M. 레디의 비판적인 사유와 달리 역사학자이자 문화 인류학자인 모니크 쉬어는 생물학적 보편주의와 인지주의의 이원론에서 벗어나 ‘실천으로서 감정’(emotion-as-practice) 개념을 제시하였다. 모니크 쉬어는 “진화와 유전으로 인해 인간 유기체에 부여된 신체적 구조, 기능, 욕구는 태어나서 공동체에 진입한 이후로는 결코 원형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없다”<sup>69</sup>고 단언하였다. 아울러 감정을 사회 구성적 결정론으로 귀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우선, 생물학적 보편주의와 인지주의 이원론에서 탈피하고자 한 모니크 쉬어의 논의에 천착하고자 한다. 그는 근대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의 미해결된 문제 중 물질성의 근거인 실체(신체)와 지성적 활동의 근거인 정신이 어떻게 교섭하느냐의 근본적인 문제인 ‘심신이원론’(mind-body dualism)의 철학적 사유에서 출발하여 감정 연구를 착수한다. 모니크 쉬어는 의식 연구, 마음의 철학 연구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확장된 마음 이론’(extended mind theory)을 가져와 논의를 전개한다.<sup>70</sup> 이 이론은 ‘내면’ 감정과 ‘외면’ 표현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전인적 체험과 같은 어떠한 것이고, 마음을 단지 뇌라는 물리적 공간에 국한하지 않으며, 신체적 실천과 외부 환경 및 도구와의 상호적 얽힘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가 주축을 이룬다. 감정이 인지와 연결된다고 가정할 때, “인지는 항상 ‘몸에 기반을 둔’(embodied), ‘땅에 뿌리내린’(grounded), 그리고 ‘분산된’(distributed) 것이라는 점을 인정”<sup>71</sup>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지심리학

---

통과 분노를 ‘감정적 피난처’에서 일시적으로 해소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압력을 연장하는 안정적 장치로 기능할 수도 있는 양가성을 지닌다.

69 Monique Scheer (2012), p. 201.

70 Andy Clark, and David J. Chalmers (1998), “the extended Mind”, *Analysis* 58, Oxford University Press, pp. 7-19; Monique Scheer (2012), p. 196

71 Monique Scheer (2012), p. 197; Margaret Wilson (2002), “Six views of embodied cognition”, *Psychonomic Bulletin and Review* 9, Springer New York; Lawrence W. Barsalou (2008), “grounded cogni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9, Annual

에서 논의된 ‘상황화된 인지’(situated cognition)는 기존의 사고가 언어적이고, 의식적이며, 뇌의 전유물처럼 인식했던 것과 달리 신체 전체—자세, 제스처, 감각 운동 체계—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토대로 논의를 확장하며 ‘감정’이 단지 뇌에서 의식적으로 인지되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관통하여 환경 속에서 수행되는 인지적 행위로 뇌-신체-환경의 통합된 체계 속에서 비로소 실현된다고 규명하였다.<sup>72</sup> 이런 논의의 맥락에서 모니크 쉬어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실천이론(Practice Theory)에 기대어 논의를 확장한다. 그는 신체를 단순한 생물학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는 축적된 지식의 매개체이자 주체로서 과거 경험을 습관화하여 인간의 행위와 인식을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앎을 지닌 몸’(knowing body)으로 이해하고자 했다.<sup>73</sup> 그렇다면, 그가 주장한 능동적인 앎을 지닌 몸이 과연 감정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모니크 쉬어에 따르면, “경험할 매개체가 없는 감정은 감정으로서 서술될 수 없”으므로 감정을 일종의 실천으로 보고 “감정이 항상 신체화되어 있음”을 주장한다.<sup>74</sup> 하지만 이러한 ‘실천으로서의 감정’(emotion-as-practice)은 단지 사회적, 문화적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고 얽혀 있는 다른 행위들과 말하기, 몸짓, 기억하기, 사물 다루기, 그리고 소리·냄새·공간을 지각하는 행위들을 통해 이루어지므로”<sup>75</sup> 감정은 신체와 마음의 복합적인 행위들(complexes of

---

Reviews; Edwin Hutchins (1995), *Cognition in the Wild*, Cambridge, MA: MIT Press.

72 Monique Scheer (2012), p. 197.

73 Monique Scheer (2012), pp. 200-201. 인류학자 마가렛 록(Margaret Lock)과 낸시 셰퍼-휴스(Nancy Scheper-Hughes)는 데카르트 이분법에서 벗어난 주체를 ‘사유하는 몸’(mindful body)이라고 지칭한다.

74 Monique Scheer (2012), p. 209.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의 특징적인 신체적 증상들을 의식에서 모두 제거하려고 한다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정을 구성하는 ‘정신적 요소’는 전혀 없고, 차갑고 중립적인 지적 인식 상태만 남게 된다.” William James (c1948), “What is emotion? 1884”, In W. Dennis (Ed.), *Readings in the history of psychology*,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p. 294.

mind/body actions)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다. 즉, ‘실천으로서의 감정’은 마치 정교한 악보 없이 즉흥 연주되는 음악과도 같다. 구체적인 경로를 미리 지시하기보다는 움직임, 몸짓, 표정, 목소리의 높낮이와 같은 섬세한 신체적 반응이 그때그때의 감정의 변화를 촉발하기 때문에 ‘실천으로서의 감정’은 완전한 예측 가능성에서 벗어나며 그 불확정성은 변화와 저항의 여지를 남긴다.<sup>76</sup> 결국 ‘실천으로서의 감정’은 단순히 사전 프로그램화된 재생산이 아니라, 순간마다 미세하게 변주되는 살아 있는 수행적 실천을 통해 내재한 능동성을 입증하고 있다.

명시할 점은 모니크 쉬어가 제시한 ‘실천으로서의 감정’(emotion-as-practice)은 어디까지나 ‘개인 아비투스’(individual habitus)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주지하듯, 합리주의와 의도주의처럼 단순한 의도나 이성적 판단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피에르 부르디외는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제도와 접촉을 통해 형성된 아비투스(habitus)가 동일 계급 내에서 유사한 성향을 갖지만, 그 조합과 표현은 개인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표출된다고 설명한다. 즉, 부르디외는 사회적 조건의 결정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행위가 단순히 그것의 산물로만 환원되지 않는 상대적 자율성 또한 인정하고 있다. 부르디외가 『실천의 논리』(*The logic of practice*, 1990)에서 논의했듯이, ‘계급 아비투스’(class habitus)는 배경에서 구조적 확률을 제공하고, 개인 아비투스는 그것을 따라가면서도 고유한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규정되지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아비투스는 “지속 가능하고 전이 가능한 성향들의 체계, 즉 구조화된 구조이면서 동시에 구조화하는 구조로 작동하도록 성향화된 구조들”<sup>77</sup>이다. 이 말은 즉, 구조에 의해 만들어지는 동시에 그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의 원리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

75 Monique Scheer (2012), p. 209.

76 Monique Scheer (2012), p. 204.

77 Pierre Bourdieu (1990), *The logic of practic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p. 53.

를 남기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감정사 연구에서 사회 구성적 결정론적 관점을 ‘강한 구성주의’(strong constructionism) 혹은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 용어와 혼용하고 있다. 고전적 사회구성주의는 환원론적·결정론적 시각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과 지식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는 논리가 기저를 이룬다.<sup>78</sup> 피터 버거(Peter Berger, 1929~)와 토마스 루크만(Thomas Luckmann, 1927~2016)이 논의한 사회구성주의는 ‘외재화’(externalization), ‘객관화’(objectivation), ‘내재화’(internalization)라는 세 가지 단계의 지속적인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쳐 현실이 만들어진다고 논증했다.<sup>79</sup> 여기서 말하는 사회구성주의는 일상 언어, 상호작용, 제도화의 과정을 통해 현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사회구성주의에서 ‘구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든 제도·지식·정체성은 고정 불변한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도구적 개념처럼 왜곡되어 쓰이게 되면서 본래의 상호작용적 구성주의가 희석되고 구조 중심의 이론들까지 사회구성주의로 포섭되는 경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논의에 기대어 보면, 모니크 쉬어의 이론적 입장은 체화된 몸이 외재화·객관화·내재화와 같은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면서 재구성되는 실천의 장으로 보았을 때 이는 고전적 사회구성주의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즉, 감정은 체화된 ‘몸’에서 ‘사회’로, 다시 ‘몸’으로 환류되는 과정이고, 주체는 신체적 경험과 사회적 구조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능동성을 발휘하여 순환적 역동성을 가능하게 한다.

78 Peter L. Berger and Thomas Luckmann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Garden City, N.Y.: Doubleday, pp. 78-79. 피터 버거와 토마스 루크만은 “사회는 인간의 산물이다. 사회는 객관적인 실재이다. 인간은 사회적 산물이다.”(피터 L. 버거, 토마스 루크만(2013), 하홍규 역, 『실재의 사회적 구성: 지식사회학 논고』, 서울: 문학과지성사, p. 102)라는 тезис을 제시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79 Peter L. Berger and Thomas Luckmann (1966), p. 149.

## 4. 나가며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감정은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철학적 명제였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물론 르네 데카르트, 데이비드 흄을 비롯한 많은 철학가는 감정을 인식, 도덕, 행동, 자아와 연관 지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 왔다. 근대로 들어서서 소위 이성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에 도 감정은 이성과 동일하게 계몽주의 운동과 근대 국가 재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였다.<sup>80</sup>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이며,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20세기 초부터 감정을 탐구 대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척되었으나, 이는 특정 사회의 제도적 측면에 집중하여 감정의 변화 양상을 조명한 연구 내지 20세기 후반, 감정 규범, 감정 체제와 같은 감정사 연구 방법론을 모색한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상위 주체의 감정 규범을 중심으로 전개한 논의이므로 감정의 수동적인 측면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 이에 본고는 기존의 감정 연구가 감정을 수동적 경험으로 이해해 온 한계를 인지하며 감정을 능동적인 요소로 논증하고자 시도한 윌리엄 M. 레디(William M. Reddy)와 모니크 쉬어(Monique Scheer)가 제시한 감정이론을 검토하고 새로운 이론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윌리엄 M. 레디는 감정은 자아-탐색적이고, 자아-변경적인 파생적 효과를 지니므로 ‘감정적 발화’(이모티브, emotives)라는 이론을 내세워 감정의 불확정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을 논증했다면, 모니크 쉬어는 감정을 신체와 정신의 복합적인 행위들, 그리고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그때마다 달라지며 형성되는 ‘실천으로서의 감정’(emotion-as-practice)을 제시하며 감정의 잠재적인 능동성을 입증하였다.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핵심 기제로 작동되는 인간의 감정은 문화와 분

80 William M. Reddy (2001), pp. 143, 154.

리될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sup>81</sup> 왜냐하면, 문화가 제도를 움직이는 엔진이라면, 감정은 그 엔진에 점화 거는 스파크일 수 있다. 이런 감정은 구조변동을 추동하는 핵심적 요소이므로 그 이론적·분석적 함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실 세계에서 감정의 능동성은 종종 문화적, 도덕적 체계와 맞물리며 능동적 실천이 가능해지는 장을 형성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문화’를 사회구조—경제, 정치, 계급—의 부산물로 환원하지 않고자 강한 프로그램(strong program)으로서의 문화 자율성을 주장한 제프리 C. 알렉산더(Jeffrey C. Alexander, 1947~)의 ‘문화사회학’(cultural sociology)을 소환하게 한다. 1980년대 뒤르켐주의의 여러 분파 중 제프리 C. 알렉산더는 미국 시민사회 담론을 민주적, 반민주적 코드<sup>82</sup>로 내세우며 민주주의 질서의 재편 과정을 분석하였다. 즉, 이항적 대립 구도를 이론 성(sacred)과 속(profane)의 상징적 코드가 어떻게 정치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질서를 재편하며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항적 민주주의 가치 체계로 구성된 시민사회의 상징 질서 속에서, ‘감정’은 체계를 움직이는 엔진 역할로 작용한다. 민주적 가치를 지지할 때는 긍정적 감정이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반대로 민주적 가치를 위반한다고 인식할 때는 부정적 감정이 촉발되어 정치적 행동으로 옮겨지는 기능을 담당한다. 새로운 정치적 사건과 사회운동이 역사적·구조적 변화를 매개하는 국면에서 그 안에 응축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는 종종 기존의 사회적, 문화적 관념을 흔들고 기존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기존의 논의처럼 사회적, 문화적 프레임은 감정을 정형화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반면에 윌리엄 M. 레디와 모니크 쉬어의 ‘감정적 발

81 William M. Reddy (2001), perface ix; Bénédicte Grima (1992), *The performance of emotion among Paxtun wome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김학이(2023), 『감정의 역사: 루터의 신성한 공포에서 나치의 차분한 열광까지』, 서울: 푸른역사, p. 8. 감정사는 문화사와 다름없음을 논의하였다.

82 Jeffrey C. Alexander (2003), *The meanings of social life: A cultural sociolog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50-151.

화’, ‘실천으로서의 감정’은 기존의 프레임 자체를 확장하거나 전복시키는 잠재적인 능동성을 부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국가나 공동체가 만든 감정 체제, 감정 규범을 분석하는 작업은 거대 서사라는 분석적 틀에 머무를 뿐, 감정의 미시적인 균열과 능동성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심리학, 철학, 문학 등 다양한 학문적 범주를 가로지르며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하위주체가 감정 규범과 충돌을 일으키고 교섭하는 가운데 어떤 감정적 피난처로 도피하고 감정적 발화와 수행을 통해 감정을 능동적인 장으로 전환하고자 시도했는지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작업은 개별 주체를 단순히 사회구조의 산물로 환원하는 결정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삶의 궤적이 투영된 일상을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감정의 미시사 연구 지향점과 궤를 같이한다.

## 참고문헌

### 논저

- 김성호(2015), 「감정사(感情史)의 개념과 쟁점: 윌리엄 레디의 연구를 중심으로」, 『영미문학연구』 29, 영미문학연구회.
- 김학이(2014), 「감정사 연구의 지평: 우테 프레베르트를 안내자로 하여」, 『독일 연구 역사·사회·문화』 28, 한국독일사학회.
- 김학이(2023), 『감정의 역사: 루터의 신성한 공포에서 나치의 차분한 열광까지』, 서울: 푸른역사.
- 노르베르트 엘리아스(1996), 박미애 역, 『문명화 과정 1』, 서울: 한길사.
- 노르베르트 엘리아스(1996), 박미애 역, 『문명화 과정 2』, 서울: 한길사.
- 박경석(2023), 「감정사 패러다임과 중국 근현대사 연구」, 『동방학지』 20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요한 호이징가(1988), 최홍숙 역, 『중세의 가을』, 서울: 문학과지성사.
- 윌리엄 M. 레디(2016), 김학이 역, 『감정의 향해: 감정 이론, 감정사, 프랑스혁명』, 서울: 문학과지성사.
- 피터 L. 버거, 토마스 루크만(2013), 하홍규 역, 『실재의 사회적 구성: 지식사회학 논고』,

서울: 문학과지성사.

查理斯·齐卡(Charles Zika)(2017), 张广翔, 周嘉滢 译, 「当代西方关于情感史的研究: 概念与理论」, 『社会科学战线』第10期, 国外社会科学.

森田直子(2016), 「感情史を考える」, 『史学雑誌』125卷 3号, 史学会.

R. R. コーネリアス(1999), 齊藤勇 監訳, 『感情の科学: 心理学は感情をどこまで理解できたか』, 東京: 誠信書房.

Abu-lughod, lila (1990), "Shifting politics in Bedouin love poetry", *Language and the politics of emotion* (ed. by Catherine A. Lutz and Lila Abu-Lugho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Alexander, Jeffrey C. (2003), *The meanings of social life: A cultural sociolog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rnold, Magda B. (1960), *Emotion and Personality, Vol. 1: Psychological Aspec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Barsalou, Lawrence W. (2008), "grounded cogni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9, Annual Reviews.

Berger, Peter L., and Luckmann, Thomas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Garden City, N.Y.: Doubleday.

Bourdieu, Pierre (1990), *The logic of practic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Clark, Andy, and Chalmers, David J. (1998), "the extended Mind", *Analysis* 58, Oxford University Press.

Corbin, Alain (1986), *The foul and the fragrant: odor and the French social imagin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orbin, Alain (c1998), *Village bells: sound and meaning in the 19th-century French countryside*, Tr. by Thom, Marti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Cornelius, Randolph R. (1996), *The Science of Emotion: Research and Tradition in the Psychology of Emo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Damasio, Antonio R. (1994),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New York: Putnam.

Dawin, Charles (1872),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London: John Murray.

Dawin, Charles (1998),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3rd ed., P. Ekman, Intro., afterword, & commentarie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Dennett, D. C. (1992), *Consciousness explained*, Boston: Little, Brown.

Durkheim, Émile (c1995),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Tr. by Fields, Karen E.,

- New York: Free Press.
- Elias, Norbert (c1994), *The civilizing process*, Tr. by Jephcott, Edmund, Oxford: Blackwell.
- Ekman, Paul (1972), *Emotion in the Human Face: Guide-Lines for Research and an Integration of Findings*, Oxford: Pergamon Press.
- Ekman, Paul (1980), *The Face of Man: Expressions of Universal Emotions in a New Guinea Village*, New York: Garland STPM Press.
- Ekman, Paul (1992), "An Argument for Basic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6(3-4), London: Routledge.
- Febvre, Lucien, and Burke, Peter, eds. (1973), *A New Kind of History: From the Writings of Febvre*, New York: Harper & Row.
- Febvre, Lucien (1941), "La sensibilité et l'histoire: Comment reconstituer la vie affective d'autrefois?", *Annales d'histoire sociale* (1939-1941) 3,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vort, Ute (1991), *Ehrenmänner: Das Duell in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München: C. H. Beck.
- Fridlund, Alan J. (1992), "The Behavioral Ecology and Sociality of Faces",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3, *Emotion* (ed. by Margaret S. Clark), Newbury Park, CA: Sage.
- Geertz, Clifford (2017),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Goffman, Erving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rden City, N.Y.: Doubleday.
- Grima, Bénédicte (1992), *The performance of emotion among Paxtun women*,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Hutchins, Edwin (1995), *Cognition in the Wild*, Cambridge, MA: MIT Press.
- James, W. (c1948), "What is emotion? 1884", *Readings in the history of psychology* (ed. W. Dennis),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Lazarus, Richard S. (1982), "Thoughts on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 and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37,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 Lutz, Catherine, and White, Geoffrey M. (1986), "The anthropology of emotion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Annual Reviews.
- Lutz, Catherine (1988), *Unnatural emotion: Everyday sentiments on a Micronesian atoll and their challenge to Western the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ors, Agnes; Ellsworth, Phoebe C.; Scherer, Klaus R.; and Frijda, Nico H. (2013), "Appraisal Theories of Emotion: State of the Art and Future Development", *Emotion Review* 5(2), SAGE Publications.
- Needham, Rodney (1978), *Essential Perplexities: An Inaugural Lecture Delivered before the University of Oxford on 12 May 1977*, Oxford: Clarendon Press.

- Oatley, Keith, and Johnson-Laird, P. N. (1987), "Towards a Cognitive Theory of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1(1), Taylor & Francis.
- Ortony, Andrew, and Turner, Terence J. (1990(97)), "What's basic about basic emotions?", *Psychological Review*,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 Plamper, Jan (2012), *Geschichte und Gefühl: Grundlagen der Emotionsgeschichte*, München: Siedler Verlag.
- Plamper, Jan (2015), *The history of emotions: an introduction*, Tr. by Keith Trib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eddy, William M. (1997), "Against Constructionism: The Historical Ethnography of Emotions", *Current Anthropology* 38(3),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eddy, William M. (2001), *The Navigation of Feeling: A Framework for the History of Emoti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per, lyndal (1994), *Oedipus and the devil: Witchcraft, sexuality, and religion in early modern Europe*, London: Routledge.
- Rosaldo, Michelle Z. (1980), *Knowledge and Passion: Ilongot Notions of Self and Social Lif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aldo, Michelle Z. (1984), "Toward an Anthropology of Self and Feeling", *Culture theory: Essays on mind, self and emotion* (ed. by Richard A. Shweder and Richard A. LeVi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saldo, Renato (c1993), *Culture & truth: The remaking of social analysis*, Boston: Beacon Press.
- Rosenwein, Barbara H. (2002), "Worrying about emotions in history",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7.3, Oxford University Press.
- Rosenwein, Barbara H. and Cristiani, Riccardo (2018), *What is the history of emotions?*, Cambridge, UK; Malden, MA: Polity.
- Smith, Philip, and Riley, Alexander (2009), *Cultural theory: an introduction*, Malden, MA: Oxford: Blackwell.
- Scheer, Monique (2012), "Are emotions a kind of practice (and is that what makes them have a history)? A Bourdieuan approach to understanding emotion", *History and theory* 51.2, Wiley-Blackwell.
- Solomon, Robert C. (1976), *The Passions: The Myth and Nature of Human Emotion*, New York: Doubleday.
- Stearns, Peter N., and Stearns, Carol Z. (1985), "Emotionology: Clarifying the history of emotions and emotional standard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90.4, Oxford University Press.
- Turner, Jonathan H., and Stets, Jan E. (c2005), *The sociology of emotion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ssmann, Claudia (2009), "Physiological Optics, Cognition and Emotion: A Novel

Look at the Early Work of Wilhelm Wundt”,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Allied Sciences* 64/2, Oxford University Press.

Wilson, Margaret (2002), “Six views of embodied cognition”, *Psychonomic Bulletin and Review* 9, Springer New York.

원고 접수일: 2026년 1월 12일, 심사완료일: 2026년 1월 18일, 게재 확정일: 2026년 2월 8일

## ABSTRACT

# Rethinking Emotion Research Methodologies and Reinterpreting History of Emotions Theory

Zheng, Meiling\*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trends in Emotion and History of Emotions research and examines the theory of History of Emotions proposed by William M. Reddy and Monique Scheer, which critically approaches the intersection of three major theoretical terrains: Biological Universalism, Cognitivism, and Social Constructed Determinism. William M. Reddy, who challenged the deterministic position that reduces emotions to social regulation and structures, demonstrated emotional agency by creating the concept of a third type of emotional utterance, the so-called ‘emotives’, beyond the ‘constative’ and ‘performative’ speech discussed by J. L. Austin. Reddy argued that emotion is both speech and action, and since it is an act of attempting interpretation rather than mere reporting, it is uncontrollable; thus, emotional expression is actively ‘uttered’ by the subject. Furthermore, Monique Scheer begins with René Descartes’ unresolved problem — the fundamental issue of how substance (the body), the basis of materiality, and mind, the basis of intellectual activity, interact — known as ‘mind-

---

\* Ph.D. Candidat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mparative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body dualism'. Monique Scheer demonstrates that emotion is the product of embodied practice that transcends Biological Universalism (body) and Cognitivism (mind), beyond dualism, demonstrating that emotions are products of embodied practice. Scheer thus clarifies 'emotion-as-practice'. And drawing on Pierre Bourdieu's concept of habitus, Monique Scheer emphasized that it must be understood as a practical field where emotion flows from the embodied 'body' to 'society' and back again to the 'body'. The two scholars' concepts of 'emotives' and 'emotion as practice'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that goes beyond the existing one-way analysis and sheds new light on the subjective aspect of emotions that agentively guiding human life.

**Keywords** History of Emotions, Biological Universalism, Cognitivism, Social Constructed Determinism, Emotives, Emotion-as-Practice